

가정예배 안내서

11

1995

충현의 만나

로마서, 사무엘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

1995

가정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로마서, 사무엘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흥교회

충현의 만나

1995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로마서 서론

로마서는 AD 57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이다. 이것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는 1~11장까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의 교리문제를 다루고 있고, 제2부는 12~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6,17절인데 그 중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신칭의(以信稱義)란 표어가 나온 것이다.

사무엘상 서론

이 책은 역사서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나갈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다.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승리가 주어졌고,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은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1

(수)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찬송 / 178장 본문 / 롬 7:1-13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7:12)

본문은 율법의 효능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약 1:22-25). 바울은 본문에서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을 말하지 않고 탐심을 사용합니다. 탐심은 몰래 파고드는 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탐심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0장 17-27절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며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젊은이는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었으나 내면의 죄를 직면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자신의 죄악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거나 부모들에게 수치를 돌리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탐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크게 슬퍼하며 가버렸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그가 진실로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드러냈습다. 그는 죄를 시인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개신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 기도 / 주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주소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7:25)

본문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본성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이러한 옛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모든 의지력과 힘을 발휘함으로써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공이 눈 앞에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옛 본성을 정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결코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움직일 때 옛 본성이 더욱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56).

율법은 옛 본성을 정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발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종류의 죄와 더불어 타락을 끌어당기는 자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나(시 119:35) 옛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림으로 즐거워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신자가 피곤하고 실의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모두 발휘하여 선한 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선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 기도 / 율법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건강과 신령한 은사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28)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네 가지 자유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둘째는 패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5-17절). 우리가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였고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자마다 패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실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18-30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31-39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37절). 그러므로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9:7)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위한다면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해 전개해오셨으며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절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의 상태에 놓임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뜨거운 동족애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자신들의 특권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고 실제로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앎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감사할 것 뿐입니다.

▶ 기도 /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주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찬송 / 350장 본문 / 롬 9:14-33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9:14)

본문에서 바울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토기장은 자신의 의도를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듭니다.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토기가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흑자들이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의 뜻과 경륜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해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감사하고 절대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0:15)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의 죄악 속에서 추구할 가치를 잃고 헤매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그 올바른 길을 따를 것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은 그것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한 개인이 독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삶을 구주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다함이 없는 사랑인 이 아름다움으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아름다움(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은 자, 즉 복음 전파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셨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서 그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친히 쓰실 ‘아름다운 발’을 적재적소에 예비해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 우리 주위를 온통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시며, 태신자들을 많이 잉태케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성령충만하여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는 충성스러운 천국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11:17)

인간이 어떻게 참된 구원의 삶, 즉 윤리적 선을 넘어 본질적인 선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본문에서는 ‘접붙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원적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진한 영양분의 은혜를 먹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접붙임은 믿음으로 되었기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든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소유할 수 없기에 아무도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이 행위로 되었으면 자랑할 수 있어도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셋째로, 뿌리와 하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소유한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따라가는 길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믿는 자들은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되어 잘못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노심초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구원얻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교회 직원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 돌아감이라 ……』(11:36)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둘째로, 인생과 만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의도대로 지으신 만물이기에 그 만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끝을 주시되 그 결국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선한 사업에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12:12)

성도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영원히 켜지 않는 고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는 견고한 것이기에 이 소망을 간직한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난에 직면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요 고난이 중첩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인내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만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셋째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자세로써 항상 기도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맛을 상실한 삶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마 26:41).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며 선하신 뜻을 좇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각 교구의 일꾼들이 초대교회 교인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13:14)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즈음의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직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성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둘째로,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을 때 어느 한 가지도 잘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술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피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취하고 방탕한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셋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육신의 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13절)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생활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14:8)

본문은 성도가 자신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되며 주님을 위하여 서로 관용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가족들 중에도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잘못되었다거나 약하다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먹는 것과 절기 지키는 일로 인해 서로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판단과 다툼이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경계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가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대부분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 빚어집니다. 교회를 잘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더 내세웁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판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방법과 상황의 문제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늘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 기도 /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해 주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학생들을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 (14:17)

본문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더 중요한 규례, 즉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성숙함을 놓치지 말라고 교훈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율무에 걸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변론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가 하는 사람 자체의 문제이지 어떤 음식이 악하다든지, 음식에 악한 귀신이 붙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은 늘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먹는 문제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사랑,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에도 칭찬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월) 약한 자를 돕는 생활

찬송 / 347장 본문 / 롬 15:1-13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15:1)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자기 입장이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더 많이 소유하고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연약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과거 불행했던 사람은 그 불행이 약점이고, 몸 약한 사람은 그것이 약점입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약점이며,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이 약점들은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강한 것으로 보충하고 채워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짐승과 기름, 돈으로 도왔던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약점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나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기도 /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주소서. 각 교구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증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15:18)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제사장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과연 내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복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 1:16). 내가 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직업인으로 또는 주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모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과 관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 분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 분이 복음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을 자랑하며 늘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주소서. 모든 장애인들과 환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16:4)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함께 수행한 성실한 일군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나의 동역자’ 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디모테 등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받게 될 면류관은 동역자들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면 어려움도 많고 힘도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할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 나아가 지역에 신앙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도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가족이 아닌데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며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이보다 더 좋은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게 해주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1:27)

본문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쇠퇴 기미를 보이던 역사적 전환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총의 섭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나의 처지는 참으로 곤고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불임의 고통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의 한나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차 있었으나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에서는 다시 수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한나는 그토록 갈망하던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토록 귀하게 얻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 3년 정도)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을 한나는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하였던 한나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 기도 /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현지인 목회자 양성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2:2)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소원의 기도를 응답받은 한나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시(詩)입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이 부분을 '구약 교회의 송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노래가 단순한 감사의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적인 감성을 초월한 성령의 감화시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밝히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는 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진솔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룩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표현한 것은 도덕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일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주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실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으신 반석과 같이 견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거룩하시고, 유일하시며, 신실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2:35)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제사의 법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홉니와 비느하스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는 빌미로 삼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 두 형제의 생명은 한 날에 끊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평생토록 쌓아왔던 업적마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던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잠 1:7)을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해두셨습니다. 분명히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됨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교훈이 되었고 나아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소서. 이 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추진중인 종합선교관 건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65:11)

본문은 다윗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의 노래로 지어 불렀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1-5절).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6-8절).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9-13절).

오늘 우리들은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매년 되풀이되는 또 한 번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지키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날의 것이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서로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참된 헌신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의 감사가 영혼 중심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것이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추진중인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3:19)

본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한 어린아이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여 있었던 시기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놀랍게도 아직 어린 나이(약 12세 가량)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음성은, 살아 계셔서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즉각 분별하지 못했으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부르심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요됨이 없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함이 없이 전달해야 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계속적으로 인도 보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안식령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4:21)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은 점차로 약화되어 갔으며, 구원의 손길은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도, 자신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오히려 외형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옳드려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형식을 더 중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라 독종의 재앙으로 ……』(5:6)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중지하셨던 하나님은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되자,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은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오해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 하여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고, 블레셋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자녀들에게는 훈계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자, 친히 모든 우상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에 도취했던 블레셋인들의 기쁨은 슬픔과 공포의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가는 곳마다 심한 독종과 재앙을 일으켰으며, 결국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에 크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을 통해 회교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벤세메스 사람들이 ……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6:13)

블레셋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재앙과 파괴를 초래하는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의논한 후에야 비로소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옛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다가 재앙을 받았던 것같이, 계속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스라엘의 신에게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젃나는 소들로 그 수레를 끌게 하되,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소가 이스라엘의 땅인 벤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리시기 위하여 내린 재앙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있는 지 일곱 달만에 자기의 어린 송아지들의 울음 소리를 뒤로 한 채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셨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암소에 이끌려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본 백성들은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닫혔던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선교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7:12)

여호와와 법례가 기뻐여아림에 있는 지 20년이 되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2).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비로소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하던 제사장 엘리 가문을 제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서원으로 드린 한나의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회복시켜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으며, 온 민족은 이 말을 따라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치기 위하여 미스바로 진격해왔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그 날에 크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대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 기도 /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8:5)

사무엘은 늙게 되자, 자기의 아들들로 사사를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통치를 맡긴 두 아들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으며,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기 원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왕을 취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또 그 제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설명을 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후에 이 왕정으로 인해 심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근심케하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주소서. 이기성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때를 따라 주님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9:6)

신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떠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울의 일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부지런히 다녔지만, 잃은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사울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울은 반드시 사무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전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조용한 기적을 이루어나가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심하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음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승리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 개하는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9:21)

사울은 매우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수려한 용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서 경건한 가문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돕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으며, 겸손한 인격까지도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칭찬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21)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앞에 선 사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겸손함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겸손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10:6)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줄 세 가지 표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여호와와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임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신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새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들을 새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사람의 종교인 것입니다.

둘째는 새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렘17:9). 우리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새마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새마음을 심어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10:19)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광경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제비뽑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 직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낭독한 후에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과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은 그의 태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취할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출발은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출발에는 매우 비극적인 아픔의 가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려는 불신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닌 인간의 왕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전혀 나무랄 데 없는 사울의 영광스러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왕을 세운 결과가 매우 비극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만의 계획이나 일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이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죄악된 요소를 모두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도록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11:6)

암몬과의 전쟁은 왕이 된 사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첫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사로잡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백성들을 소집시킬 때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울의 처신은 전쟁을 마친 후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답지 않게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더불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주도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금년 한 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11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12월에도 인도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8 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말 씀 : 빌립보서 2장 5절-11절

찬 송 : 507장

요 점 :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아예 자신을 낮추고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서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5절)라고 하셨다.

본론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며 또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낮추신” (8절)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인가?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높이길 원한다. 어린이도 그를 낮추면 기분나빠 한다. 청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여 화를 낸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어서 외부로부터 누명과 역울함을 늘 당하셨다. 아니 그의 능력과 말씀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는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 세상에는 누명과 역울함이 존재한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잘못된 죄악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누명과 역울함을 받을 때 우리는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얻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시니 더 이하로 내려갈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어떠한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하고 낮춤을 당해도 이미 그런 자리에 내려가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없었다.

(2) 예수님은 아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분이시다(8절).

우리는 겸손히 낮추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 죽음이 닥쳐오는 때에는 그 상황에 있고 싶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겸손으로 복종을 하셨다.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3)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겸손히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란 점이다.

즉 겸손은 복종이라는 것이다. 겸손히 사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다(9-11절).

우리 하나님은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데 겸손히 사는 자는 높여주시는 상을 베푸신다.

결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아예 저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어버리자. 무슨 누명도 억울함도 포용하자. 기도하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자.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예수님은 자신을 아예 () 버리셨다.
2. 예수님은 복종하시되 () 까지 복종하셨다
3.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 셧다.
4. 내가 지금 낮추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 49 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말 씀 : 빌립보서 2:12-18

찬 송 : 502장

요 점 : 성도의 약점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점이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힘쓸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서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멀리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론

첫째, 개인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다(12절). 이미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았으나 현실에서 살 때 아

무렇게나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조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점이다.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둘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13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을 늘려버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14절). 모든 일을 원망없이 하라고 하신다. 원망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이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넷째, 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1절).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도는 더러워서는 안된다. 조석변이 해서도 안된다. 그럴 때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

다섯째,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16절). 통계에 의하면 95%의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5%만이 전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전도는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지 않으면 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삶 자체도 능력과 기쁨이 사라지고 막막해지게 된다.

여섯째, 회생의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17, 18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독신이었어서 그리 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무적인가? 행정적이지요, 과학적이다. 물질을 회생하고, 시간을 회생하고, 몸을 회생하고, 삶을 회생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골똥히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회생의 삶을 살

아야 한다.

결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힘과 결심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개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다.
2.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하면서 살자.
3. 회생의 삶이 어려우나 ()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4. 우리 구역이 이룩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합니다.

제 50 과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자

말 씀 : 빌립보서 2:19-24

찬 송 : 391장

요 점 :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고자 함에 있다.

서론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본론

첫째, 그는 둘째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였다(19절). 사람은 누구나 다

첫째자리를 좋아한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첫째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렸고,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둘째, 그는 남을 돌보는데 친절하고 형제애를 가졌다(20절).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극진히 생각하였다. 그들의 어려움과 슬픔을 껍데기로 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대하였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고 한 것처럼 그는 참으로 필요한 일꾼이다.

셋째, 그는 그리스도의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을 부인하였다(21절). 사 람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고 연구하였다.

넷째, 그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혹은 제자이기를 바랐다(22-24절).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대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아들처럼 그는 바울을 전적으로 보좌하였다. 그는 바울을 '아버지에게 함같이' 대하였고, '함께' 일하였고, '수고' 하였다.

결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부르신다. 우리도 모두 그런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디모데는 첫째자리를 비워두고, 늘 ()자리에 서서 섬기기를 원하였다.
2. 그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로서, 바울은 이런 자가 '이밖에 내게 ()' 고 하였다.
3. 디모데는 바울과 ()일하였고 ()하였으며, 스승인 바울을 ()처럼 대하였다.
4. 우리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제 51 과

에바브로 디도를 배우자

말씀 : 빌립보서 2:25-30

찬송 : 402장

요점 : 에바브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의 신앙적 의지와 뜨거움을 배우자.

서론

에바브로 디도는 '매혹적'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그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매력적인 성품을 지닌 일꾼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본론

첫째, 그는 바울을 저버리지 않았다(25절). 그는 믿음의 동역자를 모

른 채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를 만나고 섬기기 위해 찾아간 인물이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동역자가 어려움을 만났을때 따스한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겠다.

두번째

둘째, 그는 교회를 저버리지 않았다(26절). 그는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 하였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가까이 혹은 멀리하는 현재의 신자들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일이다. 그는 마치 빌립보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았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27절). 참 성도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만사형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간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을 상황따라 섬기는 인물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신앙을 하였고 죽음까지도 다 맡겼다.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사자요(메신저), 나의 형제요(믿음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요(전우), 쓸 것을 돕는 자(특별히 섬기는 자) 라고 칭하였다. 우리도 아무쪼록 이와 같은 귀한 매력적인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사랑으로 대하고 () 하지 아니했다.
2.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 하며 그리워하였다.
3. 그는 () 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의지하였다.
4. 신앙적인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뜨거운 신앙으로 전진하도록 기도합시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 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